



JARA NEWS

February 2017, No. 108

from
Japan Automotive Recyclers Alliance
www.jara.co.jp

Published by JARA Corporation
Tokyo Head Office: Shinawa Bldg. 1-2-2-7F,
Nihonbashi, Chuo-ku, Tokyo JAPAN 103-0027
Phone: +81 3 3548 3010 / Fax: +81 3 3231 4690

제휴 리빌트업체와의 간담회 개최



JARA, 2017년 리빌트부품 구매 목표 방문 활동 강화 로 10% 증가

JARA (일본 자동차 리사이클러즈 얼라이언스·기타지마 소쇼(北島宗尚) 사장, 도쿄도 주오구)는, 2017년 리빌트 부품(RP)·사외 부품(GP)의 구매 목표를 전년 대비 10% 증가로 설정했다.

리빌트 부품 업체와의 관계 강화를 추진하는 등 이외에, JARA 수주 센터에서의 판로 확대에 노력한다. 연간 활동을 통해 판촉 캠페인과 기술 강습회 등도 전개하며, 작년을 웃도는 구매 실적을 통한 홍보 캠페인 및 기술 강습회 등을 전개해 지난해를 웃도는 구매 실적의 달성을 꼭 이룰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개최한 ‘제4회 RP·GP 부품 제공 회사와의 간담회’에서 표명했다. 작년을 구매 실적 목표115%에 대해 111%로 미달이었다. JARA는 “캠페인을 시작한 시기가 늦었다는 점 등이 반성할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 반성을 토대로 각종 시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RP, GP 업체와의 관계 강화는 전담 스태프를 배치하여 방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 사전에 결정한 연간 스케줄에 따른 블록 예회의 개최도 검토한다. 또한, JARA의 리사이클 파트 네트워크 ‘ATRS(오토모빌 토탈 리사이클 시스템)’ 회원의 실적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시스템 설명회 등의 기회를 활용한 교류를 강화한다.

JARA 수주 센터에서의 판로 확대에 대해서는, 기존 거래처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촉진 등 목표 수치를 정해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판촉 지원책으로는 7회에 걸친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일본 자동차 정비 진흥회 연합회와 운영하는 정보 제공 서비스인 ‘화이네스(FAINES)’에 배너 광고를 게재하여, JARA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노력하는 등, 자사 홈페이지의 리뉴얼도 실시하여, 수주 촉진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싶은 생각이다.

기술 강습회는 RP, GP 업체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스텝 업을 이룬 내용으로 실시할 계획. 참가자로부터 “보다 더 기술적으로 깊이가 있는 내용을 수강하고 싶다.”라는 의견이 많았던 점에서, 전문 지식의 강습을 추진해 나감으로 고객 대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제휴 리빌트 업체와 간담회 개최

JARA는 19일, 도쿄도 주오구의 철강 회관에서 ‘제4회 RP·GP 부품 제공 회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휴 리빌트 업체와 주식회사JARA의 집행부 등으로 34명이 참가. 2016년의 판매 실적을 돌이켜 봄과 동시에 이번 기의 판매 목표와 판촉 지원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기타지마 사장은 “기탄없는 의견과 더불어, 새로운 제안도 받으며, 올해 1년을 도약의 해로 삼고 싶다.”라며 인사했다.

(일간 자동차신문 1월 26일)

일본 자동차 리사이클부품 협의회 회장에 구리하라 (栗原) 씨, ELV기구와 긴밀 한 연락

일본 자동차 리사이클부품 협의회(리협)는, 12월 21일, 제6회 정시 사원 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임원 체제를 결정했다. 회장에는 자동차 보수 부품 연구회의 구리하라 히로유키(栗原裕之) 회장이 취임. 부회장으로는JARA그룹의 이마이 유지(今井雄治) 회장, NGP 일본 자동차 리사이클사업 협동조합의 사토 유키오(佐藤幸雄) 이사장, 리빌트공업회 전국 연합회의 후카자와 히로시(深澤広司) 회장이 취임했다.

이날, 기자 회견에 임한 구리하라 신 회장은 “역사 깊은 모임에서 큰 역할을 맡게 되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입고 차량의 감소와 소재의 침체 등 재활용 산업의 과제는 많지만 업



구리하라 신 회장(오른쪽)과
시미즈 노부오(清水信夫) 전 회장(왼쪽)

계를 활성화시키는 활동에 임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더욱이 “각 업계 단체는 회원의 감소 등에 직면하고 있다. 지금까지 리협은 부품을 메인으로, 예를 들면 일본 ELV리사이클기구는 해체를 메인으로 삼아 왔다. 앞으로는 서로가 긴밀한 관계를 맺어 행동해 나갈 필요가 있다. 업계를 지키기 위해 연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행동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리협은 이번 분기의 테마로 ‘품질·C02 삭감의 ‘가시화’를 추진’을 내걸었다. 또한, 일본 손해 보험협회와 일본 자동차 정비진흥회 연합회, 일본 중고자동차 판매협회 연합회, 일본 자동차차체정비 협동조합 연합회로 구성되는 ‘자동차 리사이클부품 활용추진회의’에서의 활동도 활발히 해 나갈 계획이다.

리협의 가맹 회원을 대상으로 한 시장 규모 조사도 지속해서 실시한다. 이번 분기는 내용을 확충하여, 재활용 부품 시장의 실태 파악에 임한다.

(일간 자동차신문 1월 5일)

C02 삭감 수치 (JARA시스템)

재사용부품 사용으로
C02 삭감 효과 참고치
2016년 12월

2,891t

※일반, 중·대형을 포함한 자동차 수리 시, 신공부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C02 배출량과 재활용부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C02 배출량의 차이가 C02 삭감 수치가 됩니다.

일반사단법인 일본자동차리사이클부품 협의회와 와세다대학 환경종합센터가LCA(전생애 환경평가기법(life cycle assessment))라는 기본 생각에 근거하여 공동 개발하였다.



세계가 주시하는 트럼프 대통령

美 트럼프 새 정부가 시동, 주시하는 자동차 업계

미국에서 트럼프 새 정부가 20일, 시동했다. 취임 전부터 과격한 발언을 되풀이하여, 기업 투자에 구두 개입한 이단의 대통령. 세계는 미국의 통상과 환경, 외교 등의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주시하고 있다.

NAFTA 재검토 불가피

산업계가 먼저 주시하는 것은 통상 정책이다. 월버 로스 상무장관은 승인 청문회에서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의 재협상을 캐나다, 멕시코에 통보할 방침을 표명함과 더불어, 한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에 대해서도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 불리한 내용”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전에서 주장한 높은 관세와 ‘국경세’는 불투명하지만, NAFTA의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원산지 규정’이 엄격해지면, 자동차 업계도 역내 생산 등의 대응이 요구된다. 각사는 “NAFTA가 변경되면 (대응을) 조정한다.” (닛산 자동차의 카를로스·곤 사장)라며 귀추를 예의 주시한다.

TPP의 탈퇴 정책도 타격이다. 일본 정부는 20일, TPP의 승인을 의결하여, 사무국을 맡은 뉴질랜드에 통지했다. 경제산업성의 간부는 “TPP의 중요성을 앞으로도 미국에 반복적으로 말하겠다.”고 말했다. 로스 장관이 언급한 양자 협정은 원산지 규정의 벽이 가로막고 있으며 “순수하게 일본에서 생산한 완성차만이 관세 우대를 인정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동) 때문이다.

◆ 파리 협정에는 잔류인가

지구 온난화 대책도 정체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경보호국(EPA) 장관 등 주요 3 각료에 지구 온난화 문제에 회의적인 인재를 기용했다.

다만, 대선 때 밝힌 파리 협정에서의 이탈은 없을 것. 연말에 미국의 환경계 싱크 탱크들과 의견을 교환한 환경부 간부는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협정의 가치를 발견하여, 이탈보

다 거래 자료로 할 공산이 큰 것이 아닌가.”라고 본다.

그러나, 가령 미국이 파리 협정의 틀에 남더라도 적극적인 참여와 자금 지원을 기피하여, 협정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 EPA가 미국계 자동차에 배려하여 연비 규제를 완화해도 온실가스 배출은 증가한다.

한편, 듀폰 등 600개 이상의 미국 기업이나 단체는 1월 10일 온난화 대책의 강화를 요구하는 요망서를 공표. 트럼프 정권에 대응을 요구하는 등의 움직임도 보인다. 환경부 간부는 “미국의 노력은 중층적이다. 연방 정부가 물러나도, 캘리포니아 주 등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러시아에 접근하며, 중국에 엄격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에도 세계와 일본이 농락될 가능성이 있다.

경제산업성 간부는 “미국, 중국, 러시아의 관계가 급변하면 일본은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라며 경계한다.

20일 대통령 취임식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거나, 많은 항의 시위가 예정되는 등 파란도 예감케 한다. 미국의 균열을 회복시키지 못한 채 ‘미국 우선’을 내걸며 달리기 시작한 트럼프 새 정부를 세계가 주시한다. (일간 자동차신문 1월 21일)

2016년 ELV인수 대수, 수출에 눌러 2년 연속 감소

사용후 자동차(ELV) 인수 대수의 감소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 자동차 리사이클 촉진센터(JARC)가 정리한 2016년 연도 실적(확보)은, 전년 대비 5·0% 감소한 304만 4,205대를 기록했다. 300만대는 넘었으나 전년도 실적보다 낮은 수치가 2년 연속. 대수 규로는 자동차 리사이클법이 시작된 2005년과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을 받은 2011년을 제외하면 사상 최저이다. 지난해는 자동차 재활용 관련 사업자의 폐업, 도산이 잇따랐다. 잔고 대수 부족뿐만 아니라 부품 운송 비용과 자원 가격, 폐차 유통 경로의 변화 등 다양한 과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으로, 관련 사업자에게는 어려운 경영의 운영이 계속적으로 요구될 것 같다.

ELV인수 대수는, 신차 판매의 침체에 따른 해체 차량의 발생 감소와 왕성한 외수에 따른 중고차 수출을 배경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2016년 실적을 피크일 때의 2010년 실적(392만 7,524대)과 비교하면 약 88만 3천대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단월 실적에서 전년을 웃돈 것은 9, 11, 12월로 3번만이다. 9월까지의 11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 실적이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도 감소 경향이 이어질 전망

특히, 중고 수출의 영향이 크다. 2016년의 수출 말소 등록 대수는 131만 4,308대. 전년 대비에서는 8·6% 감소를 나타내고 있으나, ELV의 상당수가 해외로 빠지고 있는 것이 된다. “본래, 일본에서 ELV가 될 예정의 차량이 수출되고 있으며, 인수 차량이 수출로 인해 줄어 들고 있는” (JARC) 상황이다. 수출 차량의 평균 차량이 9-10년인 것에 대해, ELV는 14·9세. 결국 “내년 이후도 ELV 발생 대수의 감소가 이어지는” (동)는 것이 된다.

2016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306만대 수준이 될 전망이다. JARC는 당초 “소비세 증세가 예정대로 실시되면 330만대 정도, 증세가 없으면 11만대정도 밑돌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도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을 전망하고 있다.

12월 단월의 ELV인수 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 증가한 25만 1,866 대였다. (일간 자동차신문 1월 19일)

경제산업성과 공정거래위원회, 빅 데이터·경쟁 정책 지식인 검토회를 설치

빅 데이터를 경쟁 정책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일본 내에서도 시작되었다. 경제산업성,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지식인에 의한 검토회를 설립해, 논의를 시작했다. 빅 데이터와 경쟁 정책을 둘러싼 논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나 독일과 프랑스의 경쟁 당국 등도 시작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도 커넥티드 카와 라이드 점유율 등 데이터가 기업과 상품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면에 접어 들고 있다. 논의의 귀추가 주목된다.

경제산업성은 ‘제 4차 혁명을 향한 경쟁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회’를 설치. 공정위도 ‘데이터와 경쟁 정책에 관한 검토회’의 첫 회합을 20일에 연다. 각각 한 달에 한 번꼴로 논의를 거듭하여, 여름 전에 보고서를 낼 예



빅데이터는 새로운 부가 가치를 낳아 가고 있다

정이다.

두 검토회가 초점을 맞춘 것은 빅 데이터의 취급이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IoT 기술의 진전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는 새로운 부가 가치를 낳는 반면,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사업 기반을 확립한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강해져, 시장 진입과 경쟁 상대를 제거하는 등 경쟁 정책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OECD는 또한, “사업자가 공통의 가격 결정 알고리즘(계산 순서)을 사용하면,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카르텔’이 가능해진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쟁 당국도 공동 보고서에서 “데이터의 장벽화를 단속하기에는, 더욱 상세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경제산업성은 빅 데이터를 활용한 이노베이션(기술 혁신)을 촉진함과 더불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를 주로 논의한다. 한편, 공정위는 독점 금지법의 집행면에서 문제점을 정리하여, 대책을 마련한다.

자동차 업계에서도 차량 거동 정보를 정체 상황의 분석이나 사고 회피에 도움이 되도록, 고장을 예측하여 정비를 장려하는 등의 움직임이 이미 확산되고 있다. 또한 자동운전이나 라이드 점유율에도 고객과 차량의 빅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새로운 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경쟁 정책의 재검토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일간 자동차신문 1월 19일)

KOBELCO

We Save You Fuel
Achieving a Low-Carbon Society

コベルコが提案する 新しい考え方

マルチ解体機

使用済み自動車の解体以外にも廃家電などの金属製機器の解体およびさまざまな複合廃棄物の解体・分別作業が可能です。

自動車解体機

使用済み自動車に含まれる素材の分別作業がスピーディーに行えて希少金属資源の回収が可能です。



SK135SRD



SK210D

コベルコ建機株式会社
www.kobelco-kenki.co.jp/

For Japan

新构想源于神钢

多功能拆除机

不仅可以拆除不再使用的汽车，还可以拆除废家电等金属制机器以及各种复合废弃物品的拆除、分类作业。

SK210D



汽车拆除机

可快速进行报废汽车内素材的分类作业，能够回收稀金属资源。

SK210D



成都神钢工程机械(集团)有限公司
www.kobelco-jianji.com/

For China

新构想源于神钢

多功能拆除机

不仅可以拆除不再使用的汽车，还可以拆除废家电等金属制机器，以及进行各种复合废弃物品的拆除、分类作业。

SK200



汽车拆除机

可快速进行报废汽车内部素材的分类作业，得以回收稀有金属资源。

SK200



FAIR FRIEND ENTERPRISE CO.,LTD.
www.ffg-tw.com/

For Taiwan

새로운 발상은 KOBELCO에서

멀티 해체기

응도 폐기된 자동차의 해체 외에도 폐가전제품 등 금속제 기기의 해체 및 다양한 복합 폐기물의 해체·분리작업이 가능합니다.



SK135SR

(주)삼정건설기계
www.samjung-kenki.co.kr/

For Korea

New ideas come from KOBELCO

Multi-Dismantling Machine

In addition to dismantling end-of-life vehicles, Multi-Dismantling Machine can break down various metal products and equipment such as used household appliances and can separate and sort various composite material wastes.

SK210D



KOBELCO CONSTRUCTION MACHINERY U.S.A. INC.
www.kobelco-usa.com/

For North America

New ideas come from KOBELCO

Multi-Dismantling Machine

In addition to dismantling end-of-life vehicles, Multi-Dismantling Machine can break down various metal products and equipment such as used household appliances and can separate and sort various composite material wastes.



SK135SRD

KOBELCO CONSTRUCTION MACHINERY AUSTRALIA PTY LTD
www.kobelco.com.au/

For Australia

New ideas come from KOBELCO

Multi-Dismantling Machine

In addition to dismantling end-of-life vehicles, Multi-Dismantling Machine can break down various metal products and equipment such as used household appliances and can separate and sort various composite material wastes.

SK210D



Car-Dismantling Machine

Car-Dismantling Machine efficiently separates and sorts raw materials in end-of-life vehicles and is able to recover rare earth metals.

SK210D



KOBELCO CONSTRUCTION MACHINERY EUROPE B.V.
www.kobelco-europe.com/

For Europe